

가는잎향유의 분화 재배를 위한 몇 가지 처리

이상인1), 연수호1), 이승연2), 이철희3)*

1), 3)충북대학교 축산·원예·식품공학부, 대학원생, 교수, 2)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사

Several Treatments of *Elsholtzia angustifolia* (Loes.) Kitag. for Pot Cultivation

Sang In Lee1), Soo Ho Yeon1), Seung Yeon Lee2) and Cheol Hee Lee3)*

1)Graduate student and 3)Professor,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Researcher,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ABSTRACT

가는잎향유[*Elsholtzia angustifolia* (Loes.) Kitag.]는 꽃이 원줄기와 가지 끝에 조밀하고 아름답게 달리며, 전초에 함유된 정유성분의 향이 우수하여 관상 및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상소재로 이용가능한 가는잎향유의 분화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2018년 7월 2일에 유묘(4월 3일~5월 31일 육묘)를 포트에 정식하여 10월 15일까지 수행하였다. 대조구는 플라스틱 화분 10호에 원예상토를 충진한 다음 200구 트레이에 셀당 4립 파종하여 생산된 유묘를 정식하여 이용하였다. 기비처리는 싱싱코트를 0, 10 및 20알로 처리하였고, 추비처리는 정식 후 4주 간격으로 hyponex (4-6-6)를 0, 1000 및 2000 mg·L⁻¹로 3회 엽면시비하였다. 차광정도 실험은 0, 55 및 75%로 광량을 달리하여 수행하였다. 왜화제는 diniconazole과 daminozide를 각 0, 1000 및 2000 mg·L⁻¹로 정식 후 4주차에 처리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비와 추비 처리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생육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절간장은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억제되었으며, 처리시 무처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측지수 및 엽수는 기비 처리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으며, 추비는 측지수와 엽수가 많아지는 경향이였다. 한편, 기비와 추비 처리는 개화율을 비교적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차광정도가 증가할수록 초장, 절간장, 경직경, 화서수, 화서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무차광과 차광처리 간 측지수와 엽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화제 처리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절간장을 감소시켰다. Daminozide 처리시 측지수와 엽수는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지상부의 생체중은 엽수와 측지수에 비례하여 무거워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00 mg·L⁻¹ 농도 처리시 개화율이 100%에 도달하였다. Diniconazole 처리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는잎향유를 분화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비와 추비는 처리하지 않고, 무차광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왜화제는 daminozide 2000 mg·L⁻¹로 처리하는 것이 측지수, 엽수 및 개화율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 분화 재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가는잎향유, 관상소재, 개화, 분화재배, 왜화제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ch@cungbuk.ac.kr Tel: +82-43-261-2526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신 관상식물 (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KNA 18-C-2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